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토피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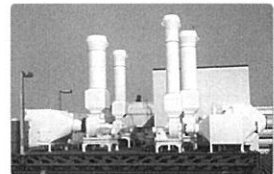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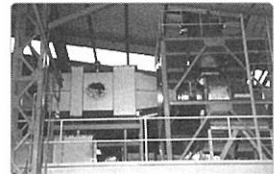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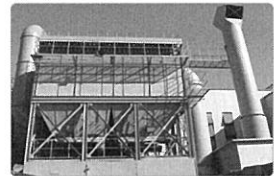
보람이엔티(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토피아 건설의 주역이 되고자 시종일관 노력하여 1996년 설립이후 16년의 역사 속에서 LG, 현대기아차, 삼성, GS칼텍스, 한화 등 대기업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가족과 같은 사내분위기 속에서 경험 많은 기술진과 패기의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연구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람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써, 소각로 및 폐기물 재활용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로 화격자효율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접목,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 고품연료생산기술개발·음식물처리시설 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는 여과집진시설, 불벤츄리스크러버, 오일미스트 컬렉터, 흡착에 의한 시설 등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기의 유동이 쉬운 다공성 형태의 불필터를 개발하여 높은 처리효율과 콤팩트한 설비로써 설치, 유지비가 저렴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많은 현장에 적용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 관련특허 : 불벤츄리를 이용한 유해가스 및 악취 정화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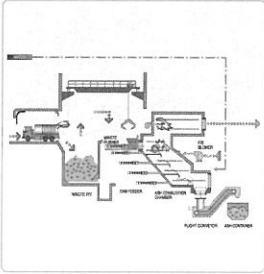


보람이엔티(주) |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27번지  
tel.062-952-7833 | Fax.062-952-7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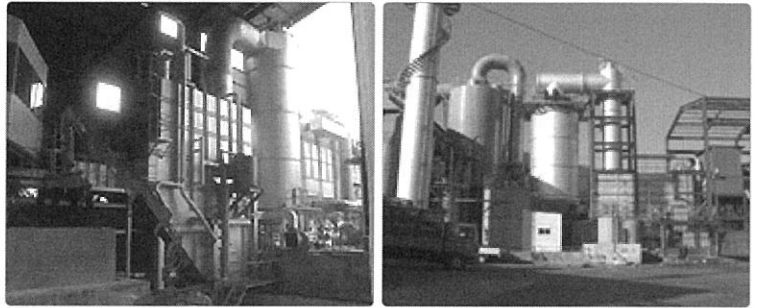
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98-12 청호B/D 나동 302호  
tel.02-584-4112 | Fax.062-952-7835

## 수관식 고정화격자 폐기물 소각로(경사형)



수냉식관을 이용한 냉각방식으로 상·하부가 뚫린 수관식 화격자로 연소 표면적이 크고 그에 따른 폐기물 연소시 폐기물 퇴적이 없고 연소속도가 빠르다. 미연가스 완전연소로 다이옥신류 생성을 최소화하였으며, 로내 구조 및 연소방식이 간단하여 운전 조작이 용이하다.

\* 관련특허 : 경사형 수관식 고정 화격자가 구비된 소각로



##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개발인 슬러지 건조시설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직접 슬러지 건조설비에 열을 제공하여 슬러지를 건조하는 설비이다.

\* 관련특허 : 열풍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용 건조장치



## 음식물 사료화 시설

수집운반된 음식물을 파쇄 탈수 건조를 거쳐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 관련특허 :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처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처리장치

## 고형연료(RPF) 생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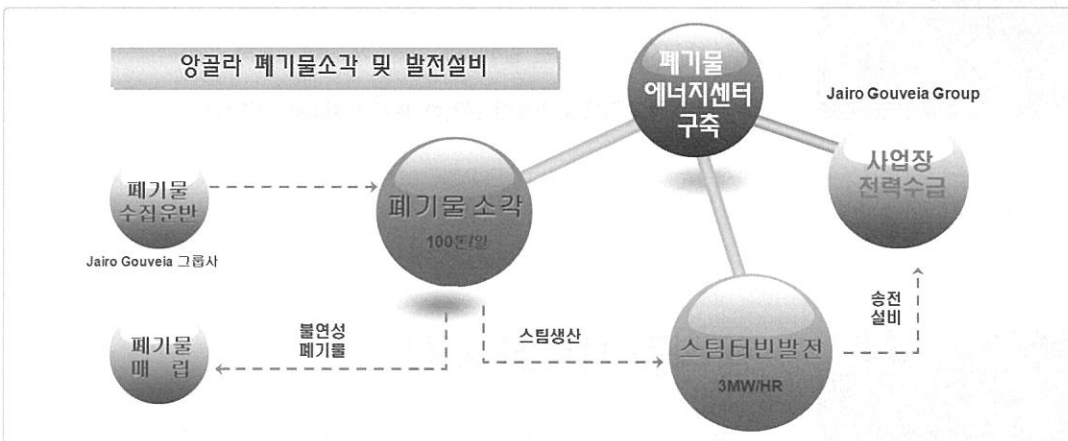
폐 플라스틱을 파쇄 분쇄 선별 성형과정을 거쳐 고형연료제품(Refuse Plastic Fuel)을 생산한다. 일본 타지리사와 기술협력을 함으로써, 국내형 성형기를 개발하였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재활용기술들을 개발하여, 슬러지 직매립 금지 및 해양 배출규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써, 폐기물의 산업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물질 처리와 열에너지로 회수하여 수익창출 및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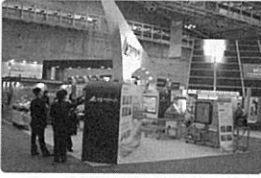
## 해외 프로젝트 사업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에 진출(아프리카 앙골라의 루안다 자이로 그룹)하여 2012년에는 미화 1,700만 달러 상당의 폐기물에너지처리 기술을 수출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현재 앙골라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단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팽창으로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폐기물 등을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고열량 폐기물을 소각하여 폐열을 이용한 전기생산 방식이 경제적이며 환경산업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프리카 앙골라 사업진출



- \* 광주기후변화 정상회의 환경전시회 당시 전시관  
발주처CEO. Jairo Guoveia 방문

〈〈 광주기후변화 환경전시전



- \* 본사 방문 및 대리점계약 체결 및 MOU체결로 인해 아프리카 진출의 길을 열었다.

〈〈 대리점 계약체결



- \* 발주처CEO. Jairo Guoveia 루안다  
소각 + 전기생산시설 설치 등의 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을 방문하여 국장,  
과장 등 시 관계자와 면담

〈〈 광주광역시 방문



- \* 앙골라 발주처의 초청으로 지난 3월에 사업수행 여건 파악하기 위해 아프리카  
10일간 방문  
쓰레기수거 현황, 매립장 방문, 국가산업단지 및 소각로 예정부지 방문 등  
환경부, 루안다 주정부, 전력청 및 앙골라 한국대사관 방문 프로젝트의 수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의견 교환을 나눔

〈〈 앙골라 현지 매립장



- \* 파티마 자르딤 앙골라 환경부장관 및 주정부, 전력청 고위직 공무원과 발주처  
경영진의 한국 방문(9/12~9/15)으로 더욱 굳건한 신뢰속에서 사업의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 앙골라 관계자 한국방문

“환경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보람이엔티”는 국내 환경방지사설 및 폐기물 처리,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 축적하여 해외 기술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아프리카에 “보람이엔티”라는 메이커를 통해 국위 선양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